

서로 돕고 형성된 공감대 속에서 무재해 삼립 이룩하자

제41호 자랑스런 안전인 (주)삼립식품 강형철 대

어렸을 적 아이스케이크와 더불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하얀 크림빵. 고소한 빵 사이에 듬뿍 발려진 새하얀 크림.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향수어린 추억이다. 아련한 기억 속 하얀 크림빵처럼 꾸준한 사랑과 열정으로 오늘을 달리는 기업 (주)삼립식품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한 안전지킴이 강형철 대리를 만나보았다.

회사 실정에 맞춘 선진 기술 도입으로 안전 삼립 만들어

대학시절 식품공학을 전공한 그는 처음에는 식품연구소로 입사하였으나, 회사의 권유로 평소 관심이 많았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길을 걷은 지 3년이 되었다고 한다. 사실, 식품공학도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대학시절 건설현장에서 아르바

현장에서 다져진 안전과 식품공학을 접목시켜 안전삼립, 최고 삼립을 만든다.



이트를 많이 했었다는 그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쳐 겪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느꼈고, 건설현장에서만 국한되는 안전이 아닌, 자신의 전공과 결부시켜 업그레이드된 안전을 한차원 성숙된 식품공학과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주)삼립식품은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5S 중심의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활동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생산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끊임 없이 정진하고, 그를 위하여 보임조별 활동을 강화시킨다. 특히 「개선제안제도」를 두어 현장내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토록 하고, 제안하는 모든 직원에게 매점이용쿠폰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월별 아이디어가 돋보인 1, 2, 3

등과 가장 많이 제안한 다제상 등을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를 높인다.

올해로 회사 창립 60주년을 맞은 이곳 식구들의 평균 연령은 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강형철 대리는 보건관리자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과 교육에 더욱 신경쓴다고 한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인 삼립식품 식구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협력해가며 안전 삼립, 최고 삼립을 위해 나아가자고 얘기한다. 안전은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며, 그로 인한 개인 건강과 회사 발전을 함께 이룩하고자 함이다.

항상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삼립식품 식구들과 교감을 나누는 그가 있기에, 오늘도 삼립의 빵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안전의 내음이 끊이지 않는다. 

〈성호연 기자〉